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 멕시코 그 1년의 기록

림수진

멕시코 콜리마 대학교

핵심어: 코로나 바이러스, 멕시코, 확산, 불안, 정부 대처

시간이 흘렀고, 사람이 죽었다. 1년 전, 그 누구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를지 몰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랐다. 지난 1년 너머의 시간은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렸다.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만나면 당연하게 끌어안고 볼 인사를 하던 시절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2021년 4월 현재 30만 명 이상이 죽었다.¹⁾ 지난 해 3월 18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1년 만이다.

지난 1년간 뉴스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었다. 코로나 확진

1) 2021년 3월 29일 멕시코 보건 당국이 제시한 '공식' 사망자 숫자는 201,429명이었으나, 같은 날 통계청(INEGI) 숫자 보정을 통한 사망자 숫자는 294,187명으로 기록되었다. 2020년 말 멕시코 통계청(INEGI)이 제시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보건당국의 숫자보다 45% 더 많게 나타났다. 이후 멕시코 정부는 보건 당국에서 제시하는 사망자 숫자에 통계청 보정 수치 45%를 더해 사망자 숫자를 이중으로 계산한다.(<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56559646>)

자와 사망자 숫자로 뉴스가 시작되었고 이어지는 뉴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하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는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멕시코인들의 일상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뉴스가 사뭇 궁금할 정도다. 과연 뉴스가 있긴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일 년 전 1에서 시작된 사망자 숫자가 30만에 이르기까지 멕시코 사회가 겪은 혼란은 상상 이상이었다. 예측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했고 사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들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어찌면 오랜 시간 멕시코 사회 곳곳에 내재된 채 그저 살짝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가리워졌 듯 여전히 가리워진 채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갔을 것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아슬아슬하게 묻혀 있던 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환기되었다. 이미 전지구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판 위에서 멕시코 특유의 문제들로 불거졌다. 이 글은 그런 문제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멕시코인들이 살아온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록이다. 언제나 문제는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터져 나오는 법, 어찌면 그간 멕시코 사회 곳곳 아슬아슬하게 덮여 있던 가장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민낯이기도 하다.

¡치노 코치노(Chino cochino)!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아시안에 대해 포용적이고 관대한 편이다. 아르헨티나, 칠레 혹은 코스타리카 등과 비교한다면 멕시코야 말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종차별을 겪는 일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물론 처음부터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이 멕시코에 이주를 시작하던 19세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가혹했다.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했고 또한 중국인과 혼인을 금지할 정도였으니, 결코 녹록했다 할 수 없다.²⁾ 그러나 20세기를 거치고 더 적극적인 아시안들의 이주가 이어지면서 인종차별이 서서히 누그러졌다. 오늘 날이라면 오히려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다. 20세기 후반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상품들이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생산 상품보다 경쟁력을 가졌고, 또한 문화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중국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거침없이 드러났다. 물론 중국인과 비중국인을 구분할 수 없는 처지이니 아시안 전체가 표적이 되었다.³⁾ 2020년 1월과 2월, 아직 멕시코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아시안들에게 쏟아지는 멕시코인들의 불편한 감정 표현은 거칠었다.⁴⁾ 이미 유럽 국가들과 바로 위 미국에서 벌어지는 아시안 차별 현상에 대한 학습은 빨랐다.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문제였다.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아시안들은 어느 순간이라도 폭동과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지했고 서둘러 철시했다.⁵⁾ 정부 혹은 보건당국으로부터

2) Borton Beja, Flora, 2008, La persecución de los chinos en México, Estudio de Asia y África, Vol. LXIII, núm. 2, pp.477-486 ; Javier Treviño Rangel, 2005, Los hijos del cielo en el infierno: un reporte sobre el racismo hacia las comunidades chinas en México, 1880-1930, Foro Internacional, Vol. XLV(3), pp.409-444 ; Catalina Velásquez Morales, 2010, Xenofobia y racismo: Los comités antichinos en Sonora y Baja California, 1924-1936, Meyibó, No. 1, pp.43-81.

3) <https://unamglobal.unam.mx/riesgo-de-brotes-racistas-y-xenofobos-a-medida-que-se-agrave-la-crisis-del-covid-19/>

4) <https://www.elsaltodiario.com/racismo/xenofobia-america-latina-expanse-mas-rapido-coronavirus>

5) 2020년 2월 중순 이후, 멕시코시티 다운타운에 위치한 테피토(Tepito) 시장의 아시안 매장들이 서둘러 철시했다.

상업 활동 제한과 관련된 어떤 지시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혹여 멕시코에서 제 1호 확진자가 아시안 중에 발생하게 된다면 그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월 28일 멕시코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멕시코 전역에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 팽팽한 긴장이 공포와 함께 느껴졌다. 그 와중에 다행은 첫 확진자가 중국인 혹은 아시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멕시코에 사는 아시안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이후 사나흘 간 열 명 이상 확진자가 더해졌지만 그 중 아시안은 없었다. 또한 다행이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한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공항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방호복을 입는 모습이 뉴스에 그대로 전해지면서 결국 한국인 중에 감염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속보로 타전 되는 일이 있었다. 순간 멕시코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긴장했다. 다행히 오 보였고 다음 날 공중파 방송 뉴스들에서 정정보도를 내긴 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시 아시안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아시안이라면 고통의 강도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장 큰 우려는 조직적 약탈이었다. 아시안들의 감염 소식은 요즘 같이 SNS가 발달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약탈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 설령 그것이 진짜 뉴스일지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시안들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초기 확진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했다. 본인의 안위 뿐 아니라 멕시코에 있는 모든 아시안들의 안위를 위해서 말이다.

다행히 첫 확진자가 되는 것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아시안들이 멕시코인들의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멕시코뿐 아니라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아시안은 ‘Chino’로 통일된다. 의미상 중국인을 가리키지만, 사실상 대부분 모든 아시안을 싸잡는다. 중국인을 ‘중국인

chino'이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인으로 싸잡히는 일이 결코 유쾌하진 않다. 특히 오랜 시간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농후했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니 이미 치노(chino)라는 그 말 안에 중국인 뿐 아니라 아시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없다 할 수 없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치노라는 말에 이어 코치노(cochino)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치노 코치노(Chino cochino)! 이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전반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장해 공공연히 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던 말이다. 그럼에도 그간의 사용이 중의적 표현에 기대어 교묘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직설적이고 공공연해졌다. 굳이 번역하자면, '역겨운 중국인' 정도다. 그 말과 함께 지난 세기 초 태평양을 건너온 중국인에게 동일시되어 붙었던 결핵, 천연두, 황열병 등과 같은 모든 병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다시 소환됐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아시안에 대해 호의적인 멕시코라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아시안에 대해 가졌던 차별의 역사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륙하기도 전에 말이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도 전 드러난 멕시코 사회의 취약한 민낯이었다.

2월 28일과 3월 18일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바로 위 미국에서도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지만, 멕시코 보건당국은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쩌면 수년 전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소멸된 에볼라 바이러스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먼 곳의 이야기였고 먼 미래

에나 올 법한 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나오기 전 이미 시중에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사라져버렸다. 누군가는 은밀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물론 보호 차원이라기보다는 매점(買占)이었다.

느긋했던 상황 전개는 2월 28일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즉각적으로 대국민 성명 데스크가 꾸러졌다. 모든 공중파 방송사들이 자사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대국민 성명을 생중계했다. 총책은 보건부 차관 우고 로페스 가텔이었다. 지난 2009년 멕시코에서 신종플루(AH1N1)가 창궐했을 때 이미 보건부에서 전염병 관련 책임 역할을 했던 바,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민들은 안도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고 어조는 확신에 차 있었다. 당일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각 방송사 뉴스로 보건대, 최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 같았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속수무책 무너지는 와중이라니 멕시코라고 뚜렷한 비책이 있을 리 없을 터, 차라리 공포 속에 시민들을 가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역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각 방송 뉴스에서는 INER(국립호흡기질환센터)로 이송된 확진자를 직접 영상에 담지 못하고 삽화로 처리하면서 최대한 공포스러운 이미지와 괴기스러운 배경음악을 깔았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감을 심어준 것은 확진자의 가족들 역시 모 장소에 ‘격리’되어 검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역시 삽화로 처리된 가족들의 이미지에도 공포감과 괴기스러움이 잔뜩 묻어 있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신으로부터 ‘천벌’을 받는 듯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바이러스 감염자야 그렇다지만, 가족들까지 격리된다는 상황에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 아우슈비치 수용소에 격리되고 그 안에서 다시 가족이 분리되는 상황을 상상하기에 충분할 만한 영상이었다. 가족 격리는 멕시코 전염병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20일 후, 3월 18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41세 남성 환자였다. 3월 9일 증상이 나타나기 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스웨덴 헤비메탈 그룹 콘서트에 참가한 것

으로 알려졌다. 당일 콘서트 장에는 1만2천5백 명이 운집했다. 멕시코시티뿐 아니라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보건 당국은 이를 후인 3월 20일 이후 모든 교육기관이 폐쇄될 것임을 발표했다.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에 이른 감이 없지 않았다. 학기 중이었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안내와 발표는 없었다.

초기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는 더딘 편이었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3월 18일 확진자는 118명이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 평균 10명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1억 3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고려하면 극히 적은 숫자였다.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멕시코는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적극적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증상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 ‘표본감시’ 전략을 택했다. 물론 전문가들의 심각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보건 당국은 최소한의 숫자만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밀고 나갔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초기 이후 2020년 상반기 내내 멕시코 전체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은 50% 안팎이었다.⁶⁾ 피검사자 두 명 중 한 명 꼴이었다.

적극적 검사 대신 멕시코 보건 당국이 택한 방역 방침은 사람들의 이동 차단이었다. 의료시스템의 부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첫 사망자가 나온 3월 18일 보건 당국은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의료, 보건, 생존과 직접 관련된 필수 산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활동이 중단됨을 발표하였다. 사망자 1명과 확진자 118명이 나온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충분한 의료 인력과 방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멕시코에서는 최선의 대안인 듯했다.

6) 2020년 하반기 검사자 중 확진자 비중이 30%대까지 하향했지만 연말 다시 50%를 상회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숫자들

필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제한이 시작된 2020년 3월 20일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2020년 6월 1일 ‘뉴노멀’이란 이름으로 다시 대부분 활동을 정상화했지만 일각에선 그 역시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다. 불과 두 달 사이 감염자 10만 명과 사망자 1만 명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전국적으로 병상이 포화된 상태였으며 1일 사망자 숫자가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던 즈음이었다. 두 달여 자택대피와 상당수 경제활동 제한이 있었지만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는 계속하여 치솟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뉴노멀’을 선언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⁷⁾ 정부 입장에선 경제활동 제재가 가져오는 부작용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⁸⁾

멕시코의 ‘뉴노멀’이 결코 노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숫자들이다. 지난 1년 간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숫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즉 치명율이 지속적으로 10%를 상회한다는 점이다. 2021년 들어 치명율이 9%대로 하락하긴 하였지만 한 때 치명율이 14%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치명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둘째, 전체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이 40~5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 꼴로 확진됨을 의미한다. 검사에 매우 소극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초기를 제외하곤 계속

7) 2020년 6월 1일 뉴노멀이 시작된 이후 사흘 만에 멕시코 보건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 숫자를 최대 3만5천 명으로 보정하였다(<https://www.animalpolitico.com/2020/06/35-mil-muertes-covid-lopez-gatell-diputados/>). 당시 이 숫자만으로도 충격적이었으나, 2021년 4월 현재 사망자는 그 열 배에 이르고 있다.

8) 50여일 간 자택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12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후 900만 개의 일자리는 복원되었지만 여전히 350만 개의 일자리는 복원되지 않고 있다.

하여 40~50%에 머물고 있다. 셋째,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사망자 숫자는 2020년 4월 이후 확진자 숫자와 함께 계속 보정되었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각 기관마다 사망자 숫자를 달리 계산하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현재 사망자 숫자와 관련하여 세 종류의 통계가 제시된다. 보건 당국에서 제시하는 숫자와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숫자 그리고 멕시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공식 숫자’다.⁹⁾ 먼저, 치명율을 보자. 치명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다.¹⁰⁾ 멕시코의 경우, 확진자 대부분은 병원에 가지 못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즉각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 후 확진이 되어도 대부분은 병원에 가지 못했다. 사설병원이야 아무 때라도 갈 수 있었지만, 천문학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¹¹⁾ 공공병원에 갈 수 있는 환자들은 처음부터 호흡에 이미 곤란을 겪는 환자들로 제한되었다. 물론 호흡에 곤란이 와도 그들 모두가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확진자 중 입원 비율은 2020년 5월 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대에 머물고 있다.¹²⁾ 확진자 중 30% 이상만

9) 2021년 1월 이후 멕시코 각 언론사들의 사망자 숫자 보고는 보건 당국의 공식 숫자와 그에 55%를 더해 통계청 수치 보정을 한 숫자를 제시한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초기였던 2020년 4월부터 보건 당국에 의한 사망자 숫자 보정은 계속되어 왔다.

10) 멕시코 의료시스템 부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현 대통령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AMLO)도 취임 직후부터 이를 지적해왔다. 취임 직후 의료기관 방문 중 한 연설에서 그는 2019년 현재 멕시코에는 27만 명의 의료진이 있지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12만3천 명의 일반 의사와 7만5천 명의 전문의가 증원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https://presidente.gob.mx/faltan-200-mil-medicos-en-mexico-garantizar-suficiencia-de-personal-de-la-salud-desafio-del-gobierno-presidente-amlo/>).

11) 멕시코 사설 병원의 경우 각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으로 입원하게 될 때 대략 2만5천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달하는 입원비가 청구된다.

12) <https://www.mexicosocial.org/un-ano-de-covid-19-en-mexico/>

입원을 하게 되어도 병상은 포화되었고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멕시코의 경우 사망자 중 절반 이상(52%)이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집에서 죽거나, 병원 앞에서 죽는 이들은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보건 당국이 계속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숫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제시하는 숫자는 비교적 초반부터 혼란을 가중시켰다. 2월 28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0일 후 3월 18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발표 이후, 다시 20일이 흐른 4월 8일 보건 당국의 발표가 그 첫 예다. 당일 확진자는 3,181명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대국민 성명에서 보건부 차관은 이 숫자에 여덟 배를 곱해야 멕시코 내 확진자에 대한 현실치 접근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¹³⁾ 그렇다면 당장 멕시코 내 감염자 숫자가 26,000명으로 증가하는 셈이었다. 3천 명과 2만6천 명 사이의 간극 앞에 혼란스러운 시민들에게 보건부 차관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멕시코의 경우 증상이 있더라도 열 명 혹은 열 두 명 중 한 명 꼴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¹⁴⁾ 그 설명의 이면엔 의심 증상을 보이더라도 검사를 받거나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고 병원에 간다 해도 입원이 가능한 경우는 더욱 제한적이란 의미가 포착된다. 그렇다면 강한 전염력에도 불구하고 감염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무수히 많은 허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터, 이미 멕시코 의료와 방역 시스템이 갖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단면이다. 감염자 숫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망자 숫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보건 당국은 사망자 숫자에서도 계속하여 혼선을 보여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초기였던 4월부터 국내외 언

13) <https://www.gob.mx/presidencia/articulos/version-estenografica-conferencia-de-prensa-inform-diario-sobre-coronavirus-covid-19-en-mexico-239987?idiom=es>; <https://www.dw.com/es/secretar%C3%ADa-de-salud-de-m%C3%A9xico-cifra-de-contagios-es-ocho-veces-mayor-de-lo-que-se-ve/a-53070806>

14)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52304983>

론뿐 아니라 장의협회와 지방 정부도 연방 보건국이 사망자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던 중이었다.¹⁵⁾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언론이 직접 수도 멕시코시티 장의협회를 돌며 숫자를 보정하고, 멕시코시티 시장 역시 각 병원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사망자 숫자를 별도로 집계하고 자체 사망자 통계를 운용했다.¹⁶⁾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한 부분은 보건 당국 스스로 수차례에 걸쳐서 사망자 숫자에 대한 보도와 예측을 번복한 사실이다. 4월 8일 사망자 숫자에 세 배를 더 곱해 보정해 줄 것으로 발표한 뒤, 사망자 예측 숫자 역시 최초 3천 명에서 두 달 후 1만 2천 명, 그리고 석 달 후에는 12만 명까지 보정되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멕시코 내 사망자 숫자는 10만 명에 도달했고 보건 당국에서도 더 이상 사망자 숫자를 예측하지 않는다. 예측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¹⁷⁾ 보건 당국이 사망자 숫자에 대한 예측을 멈춘 후에도 사망자 숫자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하여 다른 종류의 사망자 통계들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2021년 1월부터 멕시코 정부는 보건 당국의 사망자 숫자에 통계청 숫자를 더해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멕시코 통계청에 의해 작성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20년 8월 기준 보건 당국이 제시한 숫자 75,017명에 33,641명이 더 많았다. 보건 당국 수치에 45%가 더해진 것이다. 결국 이를 기준으로 2021년 1월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는 보건 당국 자체 통계와 이에 45%를 더한

15) <https://www.nytimes.com/es/2020/05/08/espanol/america-latina/mexico-coronavirus.html>

16) <https://www.forbes.com.mx/noticias-sheinbaum-diferencia-cifras-coronavirus-cdmx-salud/>

17) 2021년 1월과 2월엔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가 1,200~1,300명으로 증가했다.

통계가 이중으로 발표된다.¹⁸⁾

이 기준으로라면 2021년 3월 말 보건 당국이 제시하는 사망자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순간 멕시코의 전체 실질적 사망자 숫자는 30만 명으로 자동 계산된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이 연일 사망자 숫자를 더하면서 세계에서 사망자 수 2위 국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2021년 3월 하순에는 멕시코가 브라질을 앞질러 2위 국가가 되는 셈이다.¹⁹⁾ 보건 당국과 통계청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50%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⁰⁾ 2021년 3월 28일, 멕시코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질적 사망자 숫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음을 발표했다. 덧붙여 그 앞에 ‘최소’라는 단서를 달았으니 ‘최대’ 얼마가 될지 암담한 현실이다.

COVID 19 와중의 치안

여느 때라고 멕시코의 치안이 온전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겨우 유지되던 치안의 가장 약한 고리들부터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어찌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약탈’이 기승을 부렸다.²¹⁾ 폐로 몰려가 물리력으로 방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물건을 약취하는 방식이다. 2020년 3월 20일 이후 전국적으로 자택대피령이 내려진 직후였다. 주로 대규모 상점

18) <https://www.animalpolitico.com/2021/01/cifra-real-muertos-por-covid-mas-de-lo-reportado-por-salud-inegi/>

19)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56559646>

20) 2021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42%뿐이다 (<https://www.animalpolitico.com/2021/01/cifra-real-muertos-por-covid-mas-de-lo-reportado-por-salud-inegi/>).

21) <https://cnnespanol.cnn.com/video/saqueos-robos-coronavirus-convocatoria-evento-facebook-whatsapp-tiendas-maribel-cervantes-seguridad-edomex-cdmx-perspectivas-mexico-entrevista/>

에서 불특정 다수가 쳐들어가 물건을 절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²²⁾ 무엇보다 큰 충격은, 이와 같은 약탈이 수도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빈발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멕시코 내 약탈의 방식과 상반된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공권력 부재가 발생할 경우 주로 공권력의 영향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루어 지던 약탈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수도 한 북판에서 백 주에 다수에 의한 약탈이 빈발한 것이다. 결국 대형 상점들이 필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자택대피령과 상관없이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상당부분 영업을 포기한 채 철선했다.²³⁾ 게다가 그간 자연재해나 장시간 정전 등이 있을 때 외곽 지역에서 발생하던 약탈이 주로 일회성에 그쳤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시작된 약탈은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우발적인 경우와 달리 사전에 조직되었다. 2020년 3월과 4월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약탈은 미리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지되었다. 이를 조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약탈이 이루어지기 수 시간 전 약탈이 이루어질 장소와 시간이 명확히 공개되었다. 물론 공권력의 포착을 우려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삭제되었지만, 공지된 정보는 개인 메신저를 타고 퍼져 나갔다. 이를 전담하는 수사대가 꾸려졌지만 늘 한 발 늦었다.

그렇게 3월과 4월에 걸쳐 수도 멕시코시티와 그 주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대형 상점을 대상으로 약탈이 이루어졌는데 약탈 대상 품목 대부분은 생필품이 아닌 현금화가 쉬운 상품들이었다. 부피가 작은 컴퓨터나 핸드폰이 주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빈발하는 약탈이 갑작스레 닥친 재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의심이 동시에 불거졌다. 우발적으로 약탈에

22) <https://www.animalpolitico.com/2020/03/claves-robos-saqueo-pandemia-covid-19/> ; <https://elpais.com/sociedad/2020-03-29/vamos-a-saquearlo-todo-asi-operan-los-grupos-que-incitan-a-la-rapina-por-el-coronavirus-en-mexico.html>

23) <https://aristeguinoticias.com/2503/mexico/coronavirus-ola-de-saqueos-azota-a-comercios-en-cdmx-y-edomex/>

참여한 불특정 다수라면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쪽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약탈의 배후세력으로 자연스레 멕시코 마약 카르텔 연관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마약 카르텔은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멕시코 사회 내 그들의 영향력과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일명 ‘나르코 선물’이라 불리는 물품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강성 지역에선 성탄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때 카르텔 조직원들이 근거지에서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선물 공세를 하거나 현금을 뿌리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다. 무장한 조직원들이 커다란 트럭에 장난감을 가득 싣고 와서 마을을 돌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뿌리는 일들이 연례행사였고, 실질적으로 어려서 카르텔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카르텔 조직원이 되는 일 또한 정상적인 수순으로 여겨질 만했다. 일부 지역에선 이들과 대척점에 있어야 할 경찰들마저 마약 카르텔이 뿌려 대는 돈줄에 손을 댔다. 오랜 시간 멕시코 최강성 입지를 점해온 카르텔 신알로아(Sinaloa) 조직의 근거지 신알로아 주에서는 경찰들이 매년 연말 카르텔로부터 연말 보너스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이미 공공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직 보스 엘차포가 체포되고 또한 미국으로 이감되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을 정도로 근거지에서 이들을 향한 민심은 실질적이었고 구체적이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대부분 산업 활동들이 중단되면서 2020년 3월과 4월에 1,2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과 함께 경제는 연 최소 10% 이상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²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어떤 재난 지원금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 때 대규모 나르코 선물이 뿌려졌다.²⁵⁾ 물론 성탄절이나 어린이날은 아니었

24) <https://www.nytimes.com/es/2020/04/30/espanol/opinion/crisis-economica-mexico-coronavirus.html>

25) <https://www.lavanguardia.com/internacional/20200422/48674960674/el-narco-mexicano-se->

지만 민심을 향한 터치가 시작된 것이다. 선물 상자 안에는 당장 필요한 생필품과 기본 식량이 들어있었다. 지역에 따라 좀 더 세심하게 배려된 콧에선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금값이던 시절이었다. 선물 상자 밖에는 선물을 ‘하사’하는 주인공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다. 지역에 따라 주인공이 달라졌지만 이미 미국 연방 감옥에 수감된 자이거나 미국 마약단속국에서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경제 후퇴가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역시 뻔한 답이었다. 2020년 4월 하순 멕시코 내 각각의 카르텔이 거점을 둔 지역에서 나르코 선물이 쏟아졌다. 각 조직간 경쟁이라도 하듯 어느 지역이라고 예외 없이 동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간 공권력이 약하거나 미치지 못하던 곳에서 주로 뿌려지던 나르코 선물이 대도시 도심 한가운데까지 파고 들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제 2도시라 할 수 있는 과달라하라와 인근 도시 한복판에서도 선물이 뿌려졌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²⁶⁾ 누구도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누구냐 묻지 않았고, 누구도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누구냐 묻지 않았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마약 카르텔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 이미 조직이 전지구적 차원으로 국제화되고 각 지역의 역할이나 주력상품이

presenta-como-el-buen-samaritano-de-la-pandemia.html ; <https://www.efe.com/efe/america/mexico/hija-del-chapo-guzman-regalo-a-ninos-mexicanos-juguetes-con-imagen-capo/50000545-4236760> ; <https://www.chicagotribune.com/espanol/sns-es-coronavirus-narco-chapo-despensas-20200420-dn4qtpzytnenzous3yvflu2e4i-story.html> ; <https://www.cide.edu/coronavirus/2020/04/27/covid-19-despensas-y-narco/>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8299&CMPT_CD=SEARCH

26) <https://www.eluniversal.com.mx/nacion/seguridad/el-chapo-guzman-entrega-despensas-en-guadalajara> ; <https://www.infobae.com/america/mexico/2020/05/01/el-desafio-del-cjng-de-el-mencho-reparte-despensas-en-ciudades-y-a-plena-luz-del-dia-con-narcocorridos/>

분업화되면서 마약 카르텔도 ‘연결’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 국경들이 닫힌 것이다. 그러니 이들 역시 정상적인 생산, 유통, 공급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민심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역시 국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 보전을 위한 활동이 국내에 집중되고 그 와중에 조직간 혹은 조직과 공권력의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거지 민심 확보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2020년 초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활동들이 제한되면서 치안 관련자들은 적어도 마약 카르텔의 활동과 그로 인한 피살 건수 또한 줄어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산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피살 건수는 여느 해보다 더 많았고 심지어 수도 멕시코시티 치안장관인 오마르 가르시아가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 카르텔의 매복에 걸려 수백 발의 총격을 받기도 했다.²⁷⁾ 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에만 4만 명이상이 피살되었다. 매일 100명 이상이 피살된 셈이다. 그들 중에는 1명의 전 주지사, 3명의 현직 시장, 6명의 기자, 500여 명의 경찰, 1000명 이상의 미성년자, 그리고 3500여명의 여성이 포함되어있었다. 10만 명 이상 투입된 정부방위군도, 판데믹도 카르텔의 왕성한 활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을 막을 수 없었다.

술이 없다, 그리고 산소가 없다

2020년 3월 말, 멕시코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산업을 비필수산업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잠시 고민에 빠졌다. 3월 중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자택대피령이 내려졌

27) <https://www.animalpolitico.com/2020/06/minutos-segundos-atentado-contragarcia-harfuch/>

고, 비필수 산업에 대해서는 잠정적 생산 중단을 권고한 터였다. 당시 정부의 고민은 주류산업을 이 둘 중 어느 쪽에 배치하는가의 문제였다. 맥주 생산이 필수 산업으로 분류된다면 자택대피 기간으로 지정된 50일간 여전히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필수 산업으로 분류된다면 이 기간 동안 생산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멕시코는 전 세계 맥주 수출의 27%를 담당하고 단연 맥주 수출 1위 국가이기도 하다. 맥주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만 70만 개를 넘어선다. 때문에 생산 활동 중단이 가져올 여파 역시 무시할 수 없었지만, 결국 비필수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무엇보다도 맥주 소비가 멕시코 보건 당국이 방역 지침 중 가장 우선 순위를 둔 ‘건강한 거리두기(Sana Distancia)’에 반한다는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 실제로 자택격리가 시작된 3월 하순 이후 멕시코 내 맥주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던 터였다. 온전한 자택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맥주 생산 중단 소식이 발표되면서 패닉에 가까운 사재기가 시작되었다.²⁸⁾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멕시코인들이 유일하게 긴 줄 서는 것을 마다않고 사재기에 나선 것이 바로 맥주였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광란의 사재기 품목 대상이었던 화장지에 대해서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다. 곳곳에서 맥주를 먼저 접하기 위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 앞에 맥주 가격이 치솟았음은 물론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 이상 가격이 뛰었지만, 맥주만 구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분간 삶에서 맥주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어찌면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28) <https://www.economista.com.mx/estados/Por-que-hay-compras-de-panico-de-cerveza-en-Monterrey-20200401-0109.html>; <https://aristeginoticias.com/0104/multimedia/y-regios-hacen-compras-de-panico-de-cerveza-videos/>; <https://elpais.com/economia/2020-05-07/el-coronavirus-deja-a-mexico-sin-cervezas.html>; <https://www.lavanguardia.com/vida/20200429/48828415468/no-hay-cerveza-la-escasez-por-la-crisis-de-covid-19-se-evidencia-en-mexico.html>

있는지도 모르겠다. 맥주 생산이 중단되었더라도, 기존 생산되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주는 시중에서 그대로 유통이 되었지만 4월 말로 가면서 멕시코 전역에서 맥주가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대부분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졌다. 그 사이에 밀주가 파고 들었다. 2020년 4월 말부터 5월까지 2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금값이 되어버린 에탄올을 대신한 공업용 메탄올이 문제였다.²⁹⁾

멕시코 식품안전청장이 밝힌 죽음의 밀주 배후에는 역시나 마약 카르텔이 있다. 각 국가들의 국경이 막히면서 마약 제조를 위한 원료 수급뿐 아니라 제조와 유통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 당장의 밀주 제조가 새로운 숨통이었을 것이다. 물론 돈의 규모에서 비교가 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반 사이 공식적으로만 200여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으니 거기에 몇 배를 곱해야 실제 사망자 숫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³⁰⁾

맥주가 사라진 와중에 벌어진 대란에 이어 다시 한 번 멕시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번엔 산소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2020년 12월에 접어들면서 ‘산소 순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빈 산소통을 들고 SNS를 통해 올라오는 산소를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떠도는 사람들이었다. 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늦은 밤이라도 어디든 산소를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곳에서 줄을 섰다. 그러나 산소가 없었다.³¹⁾ 설령 산소가 있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산소를 구할 수 없었다. 2020년 12월

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0299&CMPT_CD=SEARCH

30) <https://es.insightcrime.org/noticias/noticias-del-dia/licor-ilegal-latinoamerica/>

31) 멕시코의 경우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사이 산소 뿐 아니라 평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일반 의약품들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다(<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55760361> ; <https://www.nytimes.com/es/2021/02/09/espanol/mexico-tanque-oxigeno.html>).

과 2021년 1월 사이 산소 가격은 대여섯 배 상승하였다. 산소 뿐 아니었다. 산소를 담을 수 있는 산소 탱크 역시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다. 정부가 나서서 각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산소 탱크를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지만,³²⁾ 설령 당장 가정에서 산소가 필요치 않더라도 병원이 포화된 상태에서 그 누구도 그 산소통을 내놓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았으니, 빈 산소통이라도 생명줄처럼 잡고 있어야 했다.

산소 대란은 연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급증과 함께 산소 소비가 같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이 일반적일 것이나, 그 안에는 멕시코 특유의 사정이다. 산소 대란 당시 산소를 구하기 위해 스무 시간을 마다치 않고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은 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둔 경우였다. 한마디로 당장 병원에 입원을 필요로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공공 병원엔 침상이 없어 가지 못하고 사설 병원에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호흡 곤란이 시작되고 몸 속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때 오직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산소 밖에 없었다. 멕시코시티 뿐 아니라 멕시코 상당 지역이 12월과 1월은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다. 물론 한국처럼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하에 가깝게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낄밤을 새워가며 산소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전전하였다.

그 와중에 산소 대란을 부추킨 것은 산소를 둘러싼 절도와 사기 행각이었다. 이미 여러 번 산소 탱크를 실은 화물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산소통에

32) 2021년 1월 멕시코 정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산소 탱크를 순환시킵시다”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전개했다(<https://www.gob.mx/profeco/prensa/inicia-campana-devuelve-tu-tanque-por-amor-a-la-vida-para-devolver-tanques-de-oxigeno-a-la-circulacion>).

충전된 가스가 산소가 아닌 경우도 허다했다.³³⁾ 또한 산소통에 맞춰 채워야 하는 정량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의 산소가 충전된 채 용량을 속여 거래되는 경우도 흔했다. 결국 2021년 1월 멕시코 내무부장관 올라 산체스가 이 모든 절도와 사기 행각의 배후에 마약 카르텔이 연루되었음을 밝혔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산소를 둘러싼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을 발표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산소와 산소통을 찾아 어디서든 긴 줄을 서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차가운 밤거리로 내몰았던 산소대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숫자가 점차 수그러지고 나서야 해소될 수 있었다. 이 기간 멕시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00명에서 1800명에 이르렀다.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시간이기도 하다.

판도라 상자 속의 희망일 수 있을까? 백신 접종

202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백신이 도착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공항 계류장까지 나가 벨기에 발 화물 운송기를 맞이했다. 3000회분,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확보한 나라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 지난한 시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15만 명에 육박하던 사망자 숫자의 가파른 증가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으리란 희망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받긴 했지만 접종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선별 의료진에게 접종되었고 이어 60세 이상 인구

33) 멕시코에서는 2021년 1월과 2월 사이 산소 절도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배후는 역시 마약 카르텔이 지목된다(<https://www.milenio.com/ciencia-y-salud/sociedad/robo-tanques-oxigeno-crecio-300-enero-febrero>).

에 대해 접종이 진행되었다. 행정구역 중 대도시의 경우 구로 나뉘고 소도시의 경우 도시 전체가 접종 대상 단위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각자 첫 번째 성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접종 순서가 정해졌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멕시코 특유의 잠재되어 있던 단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간 맥주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산소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섰다면 이번에는 백신 접종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60세 이상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대도시라면, 어김없이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사나흘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³⁴⁾ 멕시코 대부분 지역들이 2월이라면 아직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인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노인들의 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백신을 맞기 전에 병이 날 판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줄을 서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정부나 당국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어쩌면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살아오면서 터득해 온 어떤 몸속의 감이 작용하는 듯했다. 결국 일부 도시에서는 줄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사나흘 전부터 그 곳에 줄 선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줬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렇게 접종 순서를 위해, 혹은 번호표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그들의 몸 속에 오랜 시간에 걸쳐 터득된 감이 울었음이 증명되었다. 소읍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큰 혼란 없이 접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접종자 예정자에 비해 백신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 곳곳에서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음은 물론이다. 보건 당국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온 사람들 상당수가 접종을 받지 못했다. 오직 사나

34) <https://www.animalpolitico.com/2021/03/largas-filas-desesperacion-jalisco/>

흘씩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줄을 선 사람들만이 겨우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태반이었다.

더디고, 때론 소란이 있지만, 백신 접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³⁵⁾ 2021년 4월 말 현재 전체 인구 대비 접종율은 9%에 다가섰다. 칠레(38%)와 아르헨티나(12%)에 이어 높은 접종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일 평균 확진자는 4천 명에 가깝고 사망자 역시 300명을 넘어선다. 전체 사망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3위에 머문다.

250만 명이 감염되고 그 중 약 30만 명이 죽은 이 시점에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일상이었던 듯, 그렇게 살아간다. 학교만 빼고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간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배짱이기보다는, ‘죽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체념에 가깝다. 이 또한 오랜 시간 이들이 살아오며 몸으로 체득한 어떤 감일 것이다. 그간 정부를 믿고 기대해 본 적이 없기에 정부에 대한 실망도 없다. 오히려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 우선접종 대상자로 거론되지 않았던 교원들에 대해서도 4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란 발표가 있었으니, 아마도 다음 학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활동이 코로나시절 이전으로 정상 회귀할 것이다. 아직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분명히 ‘새로운’이란 이름을 단 정상화일 것이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학사 업무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전히 불안정한 혹은 불충분한 통신서비스로 이곳저곳에서 빼걱거림이 있을 것이다. 그 불안정이나 불충분 그리고 빼걱거림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오롯이 학생들의 몫으로 남는다.

35) 2021년 4월 현재 멕시코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은 다음과 같다. Pfizer y BioNTech(2회 접종), Oxford-AstraZeneca(2회 접종), Sputnik V(2회 접종), Sinovac(2회 접종) y CanSino(1회 접종).

멕시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적든 그들이 살아온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학교가 닫히거나 맥주 생산이 중단되거나 또한 온 국민이 백신 접종을 갈망해 마지않았던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그러니 아무래도 2020년 그리고 여전히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 와중에 불거졌던 기이한 현상들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많은 사람들이 그간의 일들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체화하고 다시 새로운 정상화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느 시절이라고 그들 삶 가운데 딱히 정상이었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믿음을 준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은 각 개인이 진 채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각개전투를 하듯 살아온 이들이기에 이 또한 그들 각각이 책임지고 치뤄내야 할 전투로 여길 것이다.

다시 판도라 상자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들이 앞을 다투어 튀어나왔지만 그 안에 유일하게 희망이 남았다고 하지 않던가. 2020년 12월 이후, 멕시코에는 세계 각 국에서 생산된 백신들이 국적 불문하고 쏟아져 들어온다. 가히 세계 코로나 백신의 종합 전시장이라 할 만하다. 어떤 백신이라도 사람들은 불만이 없다. 오직 맞을 수만 있다면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희망만 남았을 판도라 상자를 끌어안고 살아갈 것이다. 물론, 이미 죽은 30만 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죽음이 남긴 상흔이 이곳저곳에 배이겠지만, 이 또한 멕시코가 살아온 지난날의 한 장으로 남긴 채 말이다.